

전북도, 해양수산업 재도약 시동

110개 사업에 625억원 투자... 바다의 날 기념식 등 전국 단위 행사 개최 통해 기반 마련

전북도는 그동안 침체돼 있던 해양 수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먼저, 전국단위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국적으로 전북도 해양수산 분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편,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개원에 따른 도내 수산물 품질을 향상하고 수산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유관기관 및 해양수산인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전북 해양수산부의 재도약 프로젝트를 실현을 위해 110개 사업에 6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해양수산분야 전국단위 행사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집중시켜 국내외에 새만금과

2023 세계잼버리대회를 홍보하기로 했다.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은 해양르 네상스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5월 31일 군산 새만금에서 개최하고, 방송 생중계와 각종 공연, 사진전, 문화 행사, 시상식 등 다양한 식전 및 연계행사를 통해 해양수산업의 중요성, 도와 새만금사업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제8회 전국해양문화학자 학술대회는 오는 7월중에 군산대학교, 제11회 한국해양수산 신지식인 학술대회가 오는 10월중에 군산서 개최된다.

아울러,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주간에는 바다의 날 연계행사로 전국적인 해양수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제3회 새만금컵 국제대회 및 한국어업기술학회 춘계심포지엄 및 학술대회가 도내에서 열린

다.

내륙지역 전국 최초로 개원 예정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도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전북해양수산정책협의회와 산학농정 수산분과위원회 등 해양수산 유관기관 및 해양수산인과 협업과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집중 발굴하기로 했다.

제2기 산학농정수산분과위원회는 도내 해양수산인이 겪고 있는 가려운 곳을 찾아서 도정 정책에 반영하는 등 보람찾는 어민, 제값받는 어업, 사업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도 해양수산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해양수

산개발원에 의뢰해 용역 중인 전북해양수산발전계획이 완료되면, 국책사업 발굴 및 국가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노후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로 연안해역 수산자원을 보호하기로 했다. 건조가 완료되면 도내 연안을 침범하는 타시·도 불법어선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단속으로 유용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승구 농축수산물국장장은 "올해는 해양수산 전국단위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도내 해양수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민·관·학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해양수산분야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풍수해보험으로 재해 대비해요

전북도는 대설 등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월까지 풍수해보험 중점가입 기간을 운영한다.

'풍수해보험 중점가입 강조기간' 동안 중점가입 대상자 및 전년도 가입자의 재가입을 위해 집중적인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며, 읍면동사무소에 풍수해보험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지난 16일부터 국민안전처, 보험전문가와 합동으로 시·군을 순회해 주민과 시군담당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시행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지진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대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55~86%를 지원해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방법은 5개 민영보험사(NH농협손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를 통해 직접가입하거나, 주택상품의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 가입시에는 주민부담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올 겨울에는 잦은 한파와 대설이 예측되고,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많은 도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피해 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준치를 위한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100만 서명부가 현대중공업 강환구 대표에게 전달됐다.

군산조선소 준치 '도민 100만 서명부' 전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강환구 대표에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준치를 위한 전북도민의 염원이 담긴 100만 서명부가 현대중공업 강환구 대표에게 전달됐다.

24일 문동신 군산시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 나중성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 양용호 도의원, 진홍 전북도 정부부지사 등은 군산조선소 준치를 위한 범도민 서명부 전달을 위해 현대중공업 울산본사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서명부 전달과 함께 지난 20일 현대중공업 최길선 회장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언급과 관련, "전라북도도와 군산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경제논리에 따라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군산조선소 폐쇄는 80여개 협력업체의 출도산으로

6500여명의 근로자 실직이 예상돼 군산경제는 물론 전북경제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내년부터는 조선업계가 회복세로 전망되므로 군산조선소가 내년까지 도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선박건조 물량의 지역적 안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범도민 100만 서명운동은 지난해 군산시가 전라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와 함께 전북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열린연구·좋은연구' 연구과제 공모

전북연구원, 오는 2월 17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전북연구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열린연구, 좋은연구' 연구과제 도민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로 세 번째 실시되는 이번 공모에는 도정에 관심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공동으로 연구과제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농업농촌, 문화관광, 새만금, 산업경제, 복지, 보건의료, 여성가족, 교통, 환경, 안전, 주택, 도시개발 및 계획, 미래 전북사회, 행·재정 및 시민사회 등 도정 전반을 망라한다.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도민은 오는 2월 17일까지 전북연구원 홈페이지 참여마당-도민공모 게시판에서 연구과제 제안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이메일(jka@jthink.kr)로 제출하면 된다.

강현직 원장은 "도민이 원하는 현장 중심의 과제발굴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행복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에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설명회 개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24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전북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기업에 힘이 되는 전북특구'를 주제로, 전북특구 육성사업 소개와 지난해 기술창업 및 기술금융 지원사례,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의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올해 전북특구 육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융합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역량강화에 집중했다.

전북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세계 경제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액 지원하고, 전북특구를 중심으로 지역기업들의 '기술창업-공공기술 이전사업화-기술금융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개발특구의 연구소기업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론제조 전문 연구소기업인 (주)스드론의 장성기대표가 경영철학과 연구소기업 제도를 활용한 미래비전을 소개했다.

또한, 전주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 사업단의 최은복 단장은 (주)박의지(탄소소재 의료용 보조기기 기업)를 통한 탄소융·복합 기술기업의 창업 사례를,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비스타의 김종태 대표는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준비하는 (주)수테크놀로지(변기어어커펀 기업), (주)디엔티(전자동 청소기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이와 함께 (주)이노폴리스파트너스 이상진 대표는 '공공기술사업화 펀드'의 조성계획과 전북특구 등 초기 기업 집중투자 방향에 대해 안내했다.

/인재용 기자

도,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출시됨에 따라 과대포장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26일까지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고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며, 백화점, 대형할인점, 유통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선물용 주류, 화장품류,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다.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별 포장 공간비를 초과와 포장 횟수기준, 포장재의 재질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최재용 환경녹지국장은 "선물세트 포장의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단속과 함께 소비자가 과대 포장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정읍시 공고 제2017-94호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열람공고

정읍시 고시 제2013-87(2013.11.29.)호로 지정된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지정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정읍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지정계획(변경)(안)
 - 위 치 :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
 - 면 적 : 232,000㎡
 - 사업시행자 : 정읍시
2. 주민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17년 01월 24일 ~ 2017년 02월 13일
 - 공람장소 :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소성면사무소
 - 내 용 : 배수시설 추가 변경
3. 기타사항
 - 이해관계인의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의견 제출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열람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첨단과학산업과(☎ 063-539-5672), 소성면사무소(☎ 063-539-72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9. 정읍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